

신념의 공유성 가치와 독특성 가치 : 휴거에 대한 신념 및 확신도에 따른 내집단 합의성 추측의 차이

나 은 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종교인들은 신념의 공유성 가치에, 전형적인 비종교인들은 신념의 독특성 가치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예언한 대로, 휴거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특히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였으며, 휴거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은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낮게 추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들의 휴거에 대한 신념처럼 일종의 “공유된 희망 사항(shared wishfulness)”의 특성을 지닌 신념의 경우 집단 사고(groupthink)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 집단 극화를 일으키는 매개변인으로 가정하고 있는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이 신념의 공유성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즉 확신도 높은 종교인들 및 확신도 낮은 비종교인들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한다.

신념의 공유성(sharedness) 가치와 독특성(unique-ness) 가치에 관한 논의는 Abelson(1986)의 “소유물로서의 신념(Beliefs-as-Possessions)” 이론에서 비롯되었다(cf. 나은영, 1992; Abelson & Prentice, 1989). Abelson(1986)은 신념 가치(belief value)의 심리적 원천(psychological sources)을 신념의 기능(functionality)과 특성들(attributes)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1) 신념이 어떤 기능을 할 때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2) 신념이 어떤 특성들을 지니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가에 기준을 둔 것이다. 구체적으로, Abelson(1986)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신념 기능과 다섯 종류의 신념 특성들이 신념을 가치있게 만드는 심리적 원천이라고 보았다(p.235) :

신념의 기능(functionality)

도구적(instrumental) : 그 신념을 지냄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표현적(expressive) : 그 신념은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가.

신념의 특성(attributes)

공유성(sharedness) : 다른 사람들도 그 신념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독특성(uniqueeness) : 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은 지니고 있지 않은 유별난 특성을 시사하는가.

방어성(defensibility) : 그 신념이 건전한 것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극단성(extremity) : 그 신념이 명확하고 강렬하

며 최상의 것인가.

중심성(centrality) : 그 신념이 다른 신념들과 일관성이 있는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신념의 공유성 가치와 독특성 가치는 신념의 특성들에 해당한다. 공유된 신념(shared belief)은 사람들을 응집시키는 힘이 있어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한 집단의 사람들이 희망사항적인 신념(wishful belief)을 공유하고 있을 때 이 신념의 특성을 “공유된 희망사항(Shared Wishfulness)”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Abelson, 1986, p.237), 예를 들면 종교적인 신념, 특히 “휴거”에 대한 신념—하나님에 의해 공중들림 되어 인류 멸망 직전의 환난을 면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같은 것을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희망사항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유된 희망사항으로서의 신념은 단순히 공유된 신념보다도 더욱 강력한 집단 운동(mass movements)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을 때에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바탕을 둔 그 신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신념이 자기 자신만의 독특함(uniqueness)을 표현할 수 있을 때에도 그 신념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특히 좋은 방향으로 다르거나 우수하다는—믿음도 가치를 지니기에 충분한 것이다(cf. Tajfel & Turner, 1979, 1986). 그러나 이와같이 신념의 독특성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방어가능(defensible)해야 한다(Abelson, 1986). 즉, 다른 사람의 반박이나 공격에 대항하여 그 신념이 옳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념의 공유성 가치와 독특성 가치의 비중이 사람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혹은 신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비중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기반이 되는 내집단 합의성의 추측 정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종교인들의 종교적 신념들이 비종교인들의 비종교적 신념들보다 신념의 공유성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의 휴거설

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작년 10월 초, 대학생들의 휴거에 대한(긍정적 또는 부정적) 신념과 이에 대한 확신도에 따라 신념의 공유성 가치의 바탕이 되는 내집단 합의성 추측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휴거에 대한 신념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확신도까지 고려한 이유는 확신도가 약한 신념은 신념의 가치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안정적인 신념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즉, 신념의 내용이 같더라도 확신도의 高低에 따라 그 신념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Abelson(1988)은 어떤 신념 또는 태도에 확신(conviction)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신념 또는 태도가 진짜인지(즉, 핵심적인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즉, 피상적인 것인지)를 진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념 또는 태도만이 행동을 제대로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본 연구의 기본 가설에 비추어 보면, 휴거를 믿는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확신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전형적인 종교인의 특성(신념의 공유성을 독특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일 것이고, 휴거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이라 하더라도 확신도가 낮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더 전형적인 비종교인의 특성(신념의 독특성을 공유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및 예언들이 나올 수 있다:

1. 휴거 및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신념의 독특성 가치보다는) 신념의 공유성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신념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내집단 합의성의 정도에 대한 추측 비율)도 확신도가 높을 때 더 높을 것이다.
2. 휴거 및 종말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신념의 공유성 가치보다는) 신념의 독특성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따라서 내집단 구성원들이 피험자 자신의 신념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내집단 합의성의 정도에 대한 추측 비율)는 확신

도가 높을 때 더 낮을 것이다.

한편,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토른 후 집단 구성원들의 의견이 처음보다 더 극단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e.g., Stoner, 1961; Mosconici & Zavalloni, 1969; Myers & Lamm, 1976)-에 관한 Turner 등의 자기 범주화(self-categorization) 이론에서는 집단 극화를 일으키는 매개 변인으로서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polarized perception of the ingroup norm)을 가정한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즉, 집단 구성원들이 내집단 규범을 극화시켜 지각한 후 이 극화된 규범에 동조(conform)함으로써 집단 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한 검증 연구들은 대부분 집단 극화와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 사이의 상관관계는 발견하였으나 그 인과관계에 관한 결론들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e.g., Abrams, Wetherell, Cochrane, Hogg, & Turenr, 1990; Hogg, Turner, & Davidson, 1990; Turner, Wetherell, & Hogg, 1989). 본 연구에서는 집단 극화 현상 자체와는 별도로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을 일으키는 조건들(즉, 내집단 합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추측하는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을 하나의 부수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방 법

피험자

연구에 참가한 총 피험자의 수는 190명으로서, 1992년 10월 현재 전남대학교 혹은 전북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들이었다. 이 가운데 최종 분석에 이용된 피험자의 수는 148명이었다(최종 분석에서 제외된 피험자들에 관한 설명은 결과 부분 참조).

질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모두 4페이지로 되어 있었다. 질문지의 첫 두 페이지는 피험자들의 신념 조건들(종교,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신념, 그리고 이 신념에 대한 확신의 정도)을 구분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먼저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천주교, (2) 개신교, (3) 불교, (4) 원불교, (5) 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는 믿는다, (6) 종교도 없으며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다 및 (7) 기타 종교의 7개 항목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당신의 신념은 다음 네 가지 중 어느 쪽에 가장 가깝습니까?”라는 질문을 주고, 아래와 같은 네 항목 중 자기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항목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1. 휴거 또는 종말론이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한심하다.
2. 휴거나 종말론이니 하는 것들을 나는 결코 믿지 않는다. 그러나 휴거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다.
3. 언젠가는 휴거가 있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이르다. (휴거와 종말론을 근본적으로 믿고 있지만, 올해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다.)
4. 휴거는 올해 10월 28일에 반드시 온다. 그 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은 7년 환난을 겪게 되며, 1999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피험자의 신념을 위 네 가지 중에서 택일하게 한 다음, 자기가 택한 신념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뒤따랐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은 7점 척도에 표시하도록(1부터 7까지의 숫자들 중 하나에 동그라미치도록) 하였다:”

1	2	3	4	5	6	7
┆	┆	┆	┆	┆	┆	┆
┆	┆	┆	┆	┆	┆	┆
전혀		약간		상당히		전적으로
확신하지		확신한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않는다						

1) 네 항목 중 어느 것도 피험자 자신의 신념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단 여기서 한 항목을 고른 다음, 이 질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유 응답 문항들(open-ended questions)에 답할 때 질문지 뒷면의 여백에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결 과

네 페이지의 질문지 중 후반부 두 페이지에서는 (1) 피험자 자신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신념 관련 내집단) 중에서, (2) 우리나라 대학생들(신념 비 관련 내집단) 중에서, 그리고 (3)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전체 집단) 중에서 몇 %씩의 사람들이 앞서 4항목으로 분류한 휴거 및 종말론에 관한 신념들을 각각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지 각 항목별로 그 퍼센트를 기입하되, 내집단 조건별로 4항목씩의 퍼센트를 합하여 100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모두 12개의 %수치들(내집단 조건별로 각각 4개씩)이 나오게 되는데, 각 내집단 조건마다 4개씩의 %수치들을 합하여 100이 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종속 측정치로 분석한 것은 앞서 분류한 4개의 신념 항목들 중 피험자 자신이 선택했던 신념 항목에 대한 내집단 합인 % 추정치들(각 내집단 조건별로 하나씩의 % 수치)만이었다. 즉, 각 내집단 조건별로 몇 %의 사람들이 피험자 자신의 신념과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지가 연구 1의 주요 종속측정치였다.

마지막으로, (1)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피험자의 생각, 및 (2) 휴거 또는 종말론을 확신하는 사람들에 관한 피험자의 생각을 질문지 뒷면의 여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2) 이 문항 다음에 확신(conviction)의 3요인, 즉 감정적 개입(emotional commitment), 자아 몰두(ego-preoccupation) 및 인지적 정교성(cognitive elaboration) 요인을 각기 대표하는 문항 2개씩에 대해서도 피험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전적으로 그렇다)까지의 척도 위에 표시하도록 하였다(Abelson, 1988 참조). 이때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았다(괄호 안의 수치는 이들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와 확신도 측정치와의 상관계수 r 임: $**p < .01$, $*p < .001$).

- a.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을 비꾼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0.39**)
- b. 나는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기여할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0.47**).
- c. 나는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0.36**).
- d.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은 나에게 중요하다(0.32**)
- e. 나는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을 오랫동안 지녀 왔다(0.30**)
- f. 휴거 또는 종말론에 관한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0.27*).

종교별, 신념별, 및 확신도별 분류에 의한 피험자 선택

총 피험자 190명 가운데 소수를 차지하면서 본 연구와도 무관한 불교인 13명, 원불교인 2명, 및 기타 종교에 기입한 1명의 피험자를 먼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피험자였던 기독교인들(천주교 또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과 비종교인들(종교는 없지만 신의 존재는 믿는 사람들과, 종교도 없으며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신념 분포는 표 1과 같았다.

〈표 1〉 기독교인과 비종교인의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신념 분포

신념의 내용	기독교인	비종교인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 (믿는 사람들을 비판)	1	45
2.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 (믿는 사람들은 인정)	12	59
3.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 (‘92.10.28. 휴거설은 부정)	46	11
4.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 (‘92.10.28. 휴거설도 인정)	0	0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주 피험자들 중에는 비종교인이면서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사람들(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피험자 45명;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피험자 59명)과 기독교인이면서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사람들(‘92.10.28. 휴거설은 부정하는 피험자 46명)이 대다수였는데, 이들만을 다시 확신도별로 분류한 분포는 표 2에 나와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 중에는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을 믿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없었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들은 확신도가 중간점(4점)인 소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高확신도(5-7점) 집단과 低확신도(1-3점) 집단의 인원수가 거의 비슷하게(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표 2〉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과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확신도별 분포

신념의 내용 및 종교	확 신 도		
	高	中	低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을 비판)	25	0	20
2.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은 인정)	25	2	32
3.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 (’92.10.28. 휴거설은 부정)	38 (25)	3	5 (21)

주. 확신도는 7점 척도에서 5~7점을 高, 4점을 中, 그리고 1~3점을 低로 분류하였음.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신념 3)의 경우, 팔호 안의 수치는 확신도 7점을 高, 1~6점을 低로 분류했을 때의 빈도임.

나뉘었으나,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확신도가 높은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확신도가 낮은 사람들은 소수였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신념을 보통 신념 이상의 신앙 차원에서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을 확신도 7점인 사람들과 1-6점인 사람들로 분류했을 때는 그 빈도가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1) 세 집단 공히 확신도를

〈표 3〉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들과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치

신념의 내용 및 종교	신념관련 내집단 (같은 종교인)		신념비관련 내집단 (대학생)		전체 집단 (한국인)	
	확 신 도					
	高	低	高	低	高	低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을 비판)	68.92	75.27	58.08	67.10	51.11	64.09
2.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은 인정)	41.46	45.45	38.43	37.80	34.00	35.36
3.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종교인 (’92.10.28. 휴거설은 부정)	78.84 (84.52)	58.84 (64.39)	38.35 (36.94)	37.98 (39.71)	36.83 (36.62)	23.40 (3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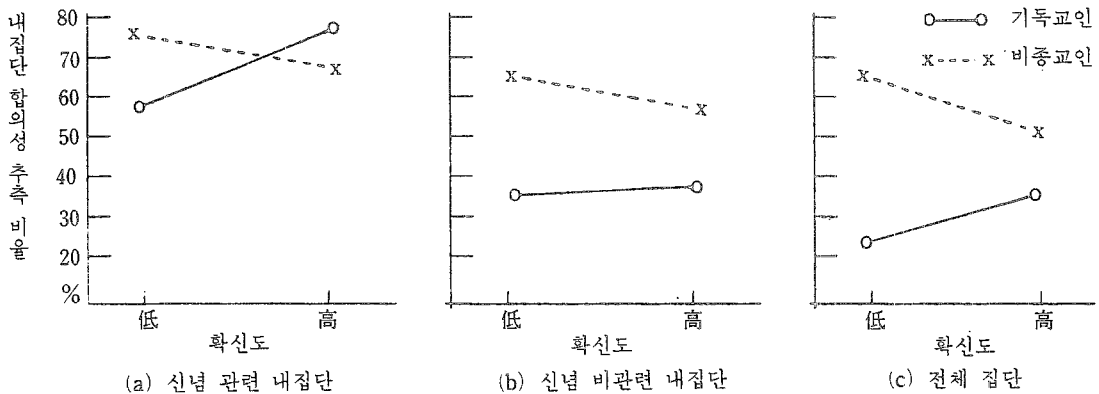
주. 확신도는 7점 척도는 5~7점을 高, 1~3점을 低로 분류하였음. 팔호 안의 수치는 확신도를 7점(高)과 1~6점(低)으로 분류했을 때의 평균치임.

5-7점(高)과 1-3점(低)으로 분류했을 때의 증속 측정치(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과 (2) 기독교인 집단을 확신도 7점(高)과 1-6점(低)으로 분류했을 때의 증속 측정치 평균을 따로 따로 분석해 보았다. 그러므로, 첫번째 분석에서는 최종 피험자 수가 145명(확신도가 4점인 피험자들 제외)이었으며, 두번째 분석에서는 148명(확신도가 4점인 기독교인들 포함)이었다.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치

본 연구의 주요 증속 측정치였던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의 평균치들이 표 3에 내집단 종류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은 표 3의 평균치들 중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비종교인들과 (2)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을 내집단 종류별로 그린 것이다.

표 3과 그림 1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피험자들이 신념 관련 내집단(같은 종교집단 혹은 같은 비종교 집단)의 합의성을 추측할 때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비종교인들은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낮게 추측하였으며, (2)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였다는 사실이다[표 3의 고딕체 부분과 그림 1의 (a) 참



<그림 1>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면서 이를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비종교인들과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의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치(내집단 종류별).

조]. 이것이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점은 비종교인들은 신념의 독특성(uniqeness)에, 기독교인들은 신념의 공유성(sharedness)—특히 같은 기독교인들과의 공유성—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표 3의 평균치들을 내집단 종류별로 변량분석한 결과가 표 4에 나와 있다. 표 4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신념집단과 확신도 간의 상호작용(A×B) 효과이다. 기독교인의 확신도를 7점(高)과 1-6점(低)으로 분류했을 때의 변량 분석(ANOVA 2)에서는 이 상호작용 효과가 아주 유의미하였고($p < .01$), 세 신념집단 공히 확신도를 5-7점(高)과 1-3점(低)으로 분류했을 때의 변량분석(ANOVA 1)에서도 거의 유의미한 수준에 가까

운 효과를 보였다($p = .0630$). 더욱 중요한 점은 표 3에서 보았듯이 기독교인들의 확신도 高低 분류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신념 관련)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치의 방향이 일관성있게 비종교인 집단과 반대되었다는 점이다. 이 평균치의 방향들은 물론 본 연구의 기본 가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표 3의 고딕체 부분 [그림 1의 (a)]만을 변량분석한 결과, 신념집단과 확신도간 상호작용 효과가 두 종류의 ANOVA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ANOVA 1: $F(1, 84) = 5.82, p < .05$; ANOVA 2: $F(1, 87) = 11.50, p < .01$). 즉,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비종교인들은 확신도 수준이 높을 때 신념 관련 내

<표 4>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율 평균치에 대한 내집단 종류별 변량분석 결과

	신념관련 내집단 (같은 종교인)	신념비관련 내집단 (대학생)	전체 집단 (한국인)
변량원	$F(p)$	$F(p)$	$F(p)$
확신도를 5~7점(高)과 1~3점(低)으로 분류했을 때(ANOVA 1)			
신념집단(A)	32.24(.0001)***	31.82(.0001)***	29.02(.0001)***
확신도(B)	0.12(.7328)	0.98(.3250)	1.43(.2345)
A×B	2.82(.0630)	1.15(.3209)	4.54(.0123)*
기독교인의 확신도를 7점(高)과 1~6점(低)으로 분류했을 때(ANOVA 2)			
신념집단(A)	39.21(.0001)***	32.59(.0001)***	29.55(.0001)***
확신도(B)	0.72(.3968)	1.50(.2226)	1.55(.2146)
A×B	6.22(.0026)**	1.06(.3491)	3.21(.0432)*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내집단 합의성 추측 비를 평균치에 대한 피험자들의 신념집단별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을 비판)	휴거 및 종말론을 부정하는 비종교인 ((믿는 사람들은 인정)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기독교인 ('92.10.28. 휴거설은 부정)
	$F(p)^1$	$F(p)^1$	$F(p)^1$
확신도(B)	5.03(.0302)*	0.16(.6871)	3.01(.0904)
내집단 종류(C)	18.91(.0001)***	7.36(.0010)**	88.85(.0001)***
B×C	0.91(.4051)	0.48(.6210)	1.72(.1847)
			$F(p)^2$
			3.13(.0839)
			103.69(.0001)***
			7.12(.0014)**

주. *확신도를 5~7점(高)과 1~3점(低)으로 분류했을 때. *확신도를 7점(高)과 1~6점(低)으로 분류했을 때(기독교인의 경우만 해당). * $p < .05$. ** $p < .01$. *** $p < .001$.

집단의 합의성을 더 낮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휴거 및 종말론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기독교인들은 확신도 수준이 높을 때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종교인들이 신념의 독특성을, 기독교인들이 신념의 공유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5는 표 3의 평균치들을 피험자들의 신념집단별로 변량분석한 결과이다. 표 5의 결과를 표 3의 평균치들과 대조하여 볼 때,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1) 휴거 및 종말론 신봉자들을 비판하는 비종교인들은 내집단의 신념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확신도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낮게 추측한 데 비해(확신도의 주효과가 유의미함), (2) 휴거 및 종말론을 근본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확신도 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는 현상이 신념 관련 내집단(같은 종교인들)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확신도와 내집단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함). 이러한 사실은 그림 1에서도 확인이 된다.

물론 어느 신념집단의 경우이나 피험자들이 신념 비관련 내집단 또는 전체 집단의 합의성에 의존하려는 정도보다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에 의존하려는 정도가 더 높은 것도 사실이었다(세 신념집단 모두에서 내집단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미함).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경우 신념 비관련 내집단보다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월등하게 더 높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논 의

본 논문의 기본 가설은 (1) 전형적인 종교인들은 신념의 독특성 가치보다 공유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며, (2) 전형적인 비종교인들은 신념의 공유성 가치보다 독특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휴거 및 종말론에 대한 기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신념을 대상으로 하여 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의 전형성을 평가하는 한 방법으로는 신념에 대한 확신도를 측정하였다. 즉, 신념의 내용이 같더라도 그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높은 사람들만을 전형적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언한 대로, (1) 휴거 및 종말론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경우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신념 공유성 가치의 바탕이 되는) 내집단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였으며, (2) 휴거 및 종말론을 믿지 않는 비종교인들의 경우 확신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내집단 합의성을 더 낮게 추측하였다. 추가적으로, 기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신념 비관련 내집단(대학생 집단)이나 전체 집단(한국인 집단)보다 신념 관련 내집단(기독교인 집단 또는 비종교인 집단)의 합의성을 더 높게 추측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이 시사하는 점은 먼저, (1) 휴거 및 종말론을 믿는(그리고 이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높은) 기독교인들은 신념의 독특성보다 공유성에 더 큰 가치를 두며, (2) 휴거 및 종말론을 믿지 않는(그리고 이

부정적 신념에 대한 확신도가 높은) 비종교인들은 신념의 공유성보다 독특성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3) 기독교인들은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신념에 높은 가치를 두며, 자기 신념이(비기독교인들과는 무관하게)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신념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신념 관련 내집단에서의 의존성은 기독교인들의 휴거에 대한 신념처럼 “공유된 희망사항(shared wishfulness)”의 성격을 지니는 신념일 때 더욱 확대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신념의 이러한 특성은 극단적인 종교 집단들의 집단사고(groupthink) 내지는 집단 행동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cf. Janis, 1972). 즉, 확신도가 높은 종교인들(특히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경우 신념 관련 내집단의 합의성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자칫 비이성적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더라도 응집력 강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종의 “공유된 희망사항”으로서 어떤 신념을 지니고 있다면, 이러한 신념은 과격한 집단사고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예: 1980년대의 광주 민주화 운동).

본 연구는 또한 집단 극화 현상에 관한 자기 범주화 이론에서 집단 극화를 일으키는 매개변인으로 줄곧 가정해 온 “내집단 규범의 극화된 지각”도 신념의 독특성 가치보다 공유성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즉(확신도가 낮은 종교인들이나 확신도가 높은 비종교인들보다) 확신도가 높은 종교인들이나 확신도가 낮은 비종교인들의 경우에 주로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 탐색해 볼만 한 주제들을 살펴 본다면, (1) 종교적 신념이 비종교적 신념보다 공유성 가치가 높다는 가설이 휴거에 대한 신념 이외의 다른 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신념에까지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아울러 (2) 소유물로서의 신념 이론에 대한 검증 방법의 하나로서, 종교적 소유물들(예: 성경책, 목주, 십자 목걸이, 등)이 비종교적 소유물들보다 공유성 가치가 높다고 지각되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겠다. 또한, (3) 비종교적인 일반 신념들 중에서 어떤 것이 공유성 가치가 높고(예: 공동체 의식 관련 신념들, 즉 환경보호,

공중도덕, 법질서 준수, 충효사상, 및 사회생활 예절과 관련된 신념들), 어떤 것이 독특성 가치가 높은지(예: 자존심 관련 신념들), 그리고 (4) 이러한 신념들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다른지 하는 점들에 대한 연구도 흥미로운 것 같다.

참고문헌

- 나은영(1992). “소유물로서의 신념(Beliefs-as-Possessions)” 이론에 관하여. *한국심리학회 '92년 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pp.307-312.
- Abelson, R.P.(1986). Beliefs are like possessions. *Journal of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6 (3), 223-250.
- Abelson, R.P.(1988). Conviction. *American Psychologist*, 43 (4), 267-275.
- Abelson, R.P., & Prentice, D.A.(1989). Beliefs as possessions: A functional perspective. In A.R. Pratkanis, S.J. Breckler, & A.G. Greenwald (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pp. 361-381).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brams, D., Wetherell, M., Cochrane, S., Hogg, M.A., & Turner, J.C.(1990). Knowing what to think by knowing who you are: Self-categorization and the nature of norm formation, conformity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97-119.
- Hogg, M.A., Turner, J.C., & Davidson, B.(1990). Polarized norms and social frames of reference: A test of the self-categorization theory of group polariza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1), 77-100.
- Janis, I.L.(1972). *Victims of groupthink*. Boston: Houghton Mifflin.
- Myers, D.G., & Lamm, H.(1976). The group polarization phenomenon. *Psychological*

Bulletin, 83, 602-627.

- Moscovici, S., & Zavalloni, M. (1969). The group as a polarizer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 125-135.
- Stoner, J.A.F. (1961). *A comparison of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s involving ri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
- Tajfel, H., & Turner, J.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Monterey, CA :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G.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IL : Nelson-Hall.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 Basil Blackwell.
- Turner, J.C., Wetherell, M.S., & Hogg, M. A. (1989).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and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35-147.

Sharedness vs. Uniqueness Values of Beliefs : Effects of
the Contents and Strength of Beliefs on Rapture on the Estimation of
Ingroup Consensus

Eun-Yeong Na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wo related hypotheses were tested : (1) the Christians who strongly believe in Rapture would be more likely to value sharedness (rather than uniqueness) of their beliefs than the Christians who only weakly believe in Rapture ; (2) the atheists who strongly reject Rapture would be more likely to value uniqueness (rather than sharedness) of their beliefs than the atheists who only weakly reject Rapture. The dependent measure was obtained by subjects' guessing on how much % of their ingroup members would agree with their own beliefs on Rapture. The predicted interaction between the level of conviction (the strength of subjects' beliefs) and the group (Christians vs. atheists) to which subjects belong was significant.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lthough both the Christians and atheists tended to rely more on the consensus of a belief-relevant ingroup than on that of a belief-irrelevant ingroup, such a tendency was more striking among the Christians than among the atheists. This implies that heavy reliance on belief-relevant ingroup's consensus may lead to a cohesive religious group's "groupthink" (Janis, 1972) or collective behavior. Even though irrelevant to religion, any belief which has an attribute of "shared wishfulness" (Abelson, 1986) such as beliefs on Rapture might lead to radical collective thoughts or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uggest that the polarized perception of the ingroup norm as a mediator of group polarization would occur more readily among those who value sharedness of beliefs relatively more than uniqueness of them such as Christians with high conviction and atheists with low conviction.